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 축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충청도민,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균형발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물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 이곳 대평뜰과 전월산, 그리고 금강과 함께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할 멋진 도시를 상상해 보면 왠지 가슴이 설렙니다.

개청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충청도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구조와 기능, 건축, 교통,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기술과 문화, 생태가 조화를 이룬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

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신도시 푸트라자야를 들렀습니다.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말레이시아와 그 국민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복도시에 대해서 아주 벽찬 기대를 하면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청 출범식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앞으로 만들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도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울도 지방도 다 함께 살기 좋은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를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를 재편성하고 도시 건설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자부심으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은 무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도시 몇 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재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문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전국 곳곳에 배치하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마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돌아와 농

민들과 함께 농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폐해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개발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좀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도민 여러분,

미래는 중부권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충남은 행정의 중심지로, 대전은 과학기술혁신 1번지로, 그리고 충북은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이곳 충청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복도시를 만듭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토,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개청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